

첫째 날

읽을 말씀: 빌립보서 2:1-11

핵심 성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8)

제목: 더 친밀한 관계

칼집이나 흠집을 냈으로써 무엇인가를, 즉 그림, 조각상, 시, 케이크 등을

창작해냈던 경험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결과물에 독특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신의 걸작품을 당신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노래를 듣거나 어떤 예술 작품을 봤을 때 혼란스러움이나 불확실성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예술가는 어떤 의도로 그 작품을 만들었을까?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 화가 또는 작가는 창작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그

창작물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와 지식을 소유한 단 하나의 사람일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소유한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빚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다 (마태복음 10:30). 그 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할 수 있다. 한편, 창작자가 그의 작업에 대해 독특한 이해와 지식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일 뿐, 그 작품 자체가 “된다”거나 그 작품의 삶을 경험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은 한정된 관점만을 가졌을 뿐이다. 그러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셨다. 즉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낮은 삶을 실제로 살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공허히 여기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성인(聖人)’에 인용된 헨리 노웬의 말처럼 “공허는 인간의 모든 조건과 환경에의 완전한 침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80).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을 몸소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둘째 날

읽을 말씀: 요한일서 2:1-17

핵심 성구: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요한일서 2:6)

제목: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해야

하나님. 만약 제가 얼마나 헌신되어있는지 아실 날이 있다면, 그 날은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제 아내와 자제력을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욕설은 어쩔 수
없이 좀 했지만, 아무에게도 주먹을 날리지 않았습니니다. 그 사람들은 솔직히 더
당해도 싣 인간들이므로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제 아내 그레첸은
당장 이혼하고 싶을 만큼 분별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그녀에게 충실하며, 그녀 또한
제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며 돌보고 있는지 잘 알거라 믿습니니다. 전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헌금도 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돈도 곧잘 줍니다. 뭐, 성경을
읽는다거나 말씀연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이 정도면 할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절 좀 눈여겨 보시면 제 점수가 꽤 높다는 걸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매우 잘 살고 있다고 뽐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들 같지는 않다구요.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선포는 하되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 뭔가를 말하는 것은 실제로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고 요구하신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를 안다고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심지어 그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조차 외면 받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의지를 온전히 그분께 드러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사랑에 의해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과 나누며 걸게 될 것이다.

셋째 날

읽을 말씀: 이사야 1:11-20

핵심 성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은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1:18-19)

제목 : 깨끗해지려면

이슬람교인들은 예배당인 모스크에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그들은 모스크 바깥의 특별한 공간으로 가서 신발을 벗는다. 그리고

씻는 의식이 시작된다. 물이 땅을 향해 부어지면, 그 물로 손과 귀, 입술, 코, 팔,

다리 등을 모두 깨끗이 씻게 된다. 이 과정 도중 그들은 특별한 기도문을 외운다.

이러한 씻는 행위는 모스크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필수적으로 행해진다. 씻었다는

것은 알라에게 그의 기도를 올릴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완벽하게 씻는 의식이

행해지지 않으면 기도가 용납되지 않는다.

유대인들도 이러한 의식을 행했다. 그들은 잘못된 일들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갖고 왔다. 흠 없는 동물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했고,
그러면 동물들은 그들의 죄를 위해 희생되었다. 이 희생제물들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이 씻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의식만으로 충분할까? 이러한 외식적인 종교행위가 구원을 가져다줄까?
비록 하나님이 이러한 희생물을 요구하셨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가 뒤따르지
않는 행위들로 인해 질리셨을 것이다. 그 백성들은 종교적인 율법은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하는 척
연기했을 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호세아 6:6).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우리는 그에게로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깨끗게 씻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깨끗이 씻고 회개한 우리의 중심이다.

넷째 날.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4:1-9

핵심 성구: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상속자니라.” (갈라디아서 4:7)

제목: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뜨거운 태양이 그의 살갓을 따갑게 태웠다. 흥건한 땀이 그의 머리를 흠뻑 적시고

땀을 타고 내려와 목으로 줄줄 흘렀다. 무거운 짐을 진 그의 근육은 잔뜩 긴장해

있었고 더 이상 들 수 없다고 느꼈다. 극도의 긴장의 순간에 채찍이 휘둘러지고

그의 살갓에는 불꽃 같은 붉은 핏자국이 패어졌다. 속으로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는 단호히 이를 악물었다. 그의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졌고 쇠사슬은 흙바닥에 질질 끌렸다. *삶이 어찌 이 지경이란 말인가?* 그의 마음이 소리쳤다. *내가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노예로 살아왔다. 바로 죄의 노예 말이다. 예수님의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을 때, 우리를 옹아맸던 사슬이 풀리고 우리는 해방되었다. 노예가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영혼의 해방감을 상상해보라. 맘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는 자유다!”라는 즐거운 비명이 쏟아져나올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맘껏 만끽하지 못하고 찝끔찝끔 맛보고는 한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여전히 둘러싸인 채 똑같은 생활패턴 속에 살아가곤 한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은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이상 노예신분이 아닌 해방을 경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분의 구원의 충만함 안에서 살겠다고 지금 바로 결단하라.

다섯째 날

읽을 말씀: 시편 139 편

핵심 성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39:7)

제목: 하나님의 주파수

집 안에 라디오가 켜져 있다. 음악의 부드러운 선율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소음 역시 들린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두 아이가 다투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장난감이 마루바닥에 던져지고 텔레비전이 켜진다. 식기세척기 안에서는 접시 행구는 소리가 달그락 달그락 나고 있다. 라디오에서 연주되고 있는 부드러운 선율의 속삭임을 듣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 귀 기울여주길 갈망하며 연주 중일지라도,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

하나님 역시 그 음성에 귀가 기울여지길 갈망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거나, 손수 우리의 볼륨 스위치를 찾고 싶어하신다. 삶의
분주하고 산만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좀 더 분명히 듣길 원하신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분과의 상호
작용할 영역을 따로 구분해놓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한다. 특정시간에만, 특히 우리
자신이 편한 시간이나 그가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길 원할 때, 혹은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분과 상호작용하곤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도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하신다.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가 그랬듯, 우리도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시는
것이다.

여섯째 날

읽을 말씀: 이사야 11:1-10

핵심 성구: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10).

제목: 공동체에서의 삶

“공동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대체로 ‘사람들의 무리’ 정도의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무리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성경은 믿는 자들을 ‘공동체’라고 일컬고 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갖았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향한 항해길에 함께

오른 사람들이므로 서로를 돕고 격려해야 한다. 남보다 더 잘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날마다 성인(聖人)’에서 짐 햄튼에 따르면, 우리가 소망하는 공동체는

이사야 11 장에 잘 나와있다. 그는 이 성경본문이 모든 사람이 속해있고, 모두가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그 안에서 치료와 변화가 일어나는 진정한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95-96).

당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도 이와 같은가? 이러한 환경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좇는 것이다.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마태복음 22:37,39). 이 계명들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뤄주실 것이다.

일곱째 날.

읽을 말씀: 빌립보서 2:12-18

핵심 성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14-15)

제목: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선명한 검은 커튼과 같은 밤하늘 위로 별들이 점점이 수놓아져 있다. 넓디 넓은

우주 위에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흩뿌려져 반짝인다. 땅에서 올라오는 불빛이 별로

없는 외딴 곳의 하늘에서는 더욱 선명하고 밝은 반짝임을 수천 개까지도 볼 수 있다.

어떤 별들은 반짝 반짝거리고 어떤 별들은 꾸준한 빛을 내보낸다. 어떤 것들은 우리

눈에 노랑거나 붉게, 또 어떤 것들은 순백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밤하늘의 어둠이

한창일 때, 그들은 더욱 우리의 주의를 끌며 환한 빛을 발한다.

별은 천문학적으로도 참으로 경이롭다. 이 가스 폭발 덩어리들은 넓은 우주 공간을

거쳐서 우리가 사는 곳까지 도달할 정도로 밝은 빛 에너지를 발산한다. 우리가 별에

대해 아는 지식의 대부분은 과학자들이 수집한 최고의 정보에 근거한 가설들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빛의 여행속도를 고려했을 때, 수백만년 전에 이미 발생한

폭발에 의한 빛을 지금 우리가 어두운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별을 본다는 것은, 그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할 때까지의 거리를 고려해보면,

아마도 과거에 소멸된 빛을 이제야 보는 것일 것이다. 과학계가 별들을 분석하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경이로움이 남아있고 칠흑

같은 밤마다 우리는 별에 주의를 기울인다. 별들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신비스럽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둔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두드러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동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